

젊은 추진력으로 사업 확장 미래지향적 푸드기업으로 거듭

플랜튜드 내부 전경

유통·식품업계 새 얼굴

4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

풀무원 영업이익 개선에 원동력
컨세션·위탁급식 사업 확장 주력
공항라운지, 휴게소 등 수주 성사
전년대비 매출 36.6% 끌어올려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풀무원은 '3조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풀무원은 올해 지속가능식품 개발은 물론, 국내에서는 위탁급식사업과 컨세션 사업 등에 힘을 실어 내실을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2조9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은 135.4% 증가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풀무원에 따르면 단체 급식, 외식, 컨세션 사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해외 사업 성장이 영업 이익 개선의 원동력이 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991년 위탁급

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사업, 휴게소 사업, 전문 브랜드 레스토랑 사업 등 다양한 푸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부산 엘시티 전망대 '엑스 더 스카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풀무원은 푸드서비스 전문 주요 계열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에 같은 회사 이동훈 DF (Designed Food) 사업 본부장을 선임했다.

이동훈 대표는 2002년 풀무원푸드앤컬처에 경력입사해 급식개발실장, 급식 사업본부장, DF사업 본부장을 맡아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영업, 수주 능력을 발휘해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고 실적을 턱어라운드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취임 후 같은 해 12월 중순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인천공항라운지5개 운영사업권을 수주했다.

수주한 인천공항 라운지는 제1터미널 3개 사업장과 제2터미널 2개 사업장 총 5개이며, 신규 수주한 제2터미널 2개 사업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오픈하고 있다.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컨

이동훈 대표 주요 약력

2024.1~	한국생물공학회 부회장
2023.7~	민간투자휴게시설협의회 부회장
2023.7~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이사
2017.11~2023.6	풀무원푸드앤컬처 DF사업본부 본부장
2015.1~2017.10	풀무원푸드앤컬처 급식사업1본부 본부장
2002.3~2014.12	풀무원푸드앤컬처 급식부문 부산개발팀장, 지사장
1999.5~2002.3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부산영업소 소장



푸드테크로 미래형 휴게공간 선봬 디지털기술 활용 언택트 서비스도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운영 식물성 기반 음식 신뢰도 높여

세션 사업 확장에 주력해왔다. 인천공항라운지 운영사업권, 공주휴게소(양방향) 운영사업권, 덕유산휴게소 주유소(양방향) 운영사업권 등 신규 수주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지난해 컨세션(휴게소포함) 사업은 코로나 이전 매출을 회복해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36.6% 증가하고, 손익은 207.7% 올랐다.

현재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리조트 등 주요 채널 내 식음사업 등 34개의 컨세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양평, 함안휴게소 등 전국 25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이동훈 대표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다"며 "한국 최고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을 지향하는 푸드앤컬처가 더욱 젊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운영하는 휴게소와 급식시설에 푸드테크를 도입해 운영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영동 고속도로 안산 복합 휴게소에 요리로봇과 디지털 무인배송 서비스를 도

입해 고객들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하며 미래형 휴게 공간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볶음요리 전문 요리로봇 '로봇웍'을 도입해 전문 조리사 수준의 맛과 품질을 구현했다.

커피전문 드라이브스루(DT, Drive Thru) 및 로봇 바리스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휴게소 곳곳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풀무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차별화의 중심에는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 급식장 수주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대형급식 사업장들을 공략해 계약을 따내면서 호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 식물성 기반의 음식 알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플랜튜드는 식물성기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 스마트 팜 존을 설치해 밭고랑에 수 있는 채소라는 점을 강조, 신뢰도를 높였다. 실제로 친환경 허브류 및 식용 화훼류 등 재배된 채소를 샐러드 메뉴용 식재료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휴게소 전경.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풀무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볼티모어 사고선박 놓고 "시스템 결함발견 vs 두차례 검사 통과" /사진 뉴시스
▲'트럼프 막아라' 오바마 등판... '바이든 측에 직접 전화해 조언'

▲인도 뭍바이, 베이징 제치고 아시아 최고 역만장자 도시
▲잡아치는 북러 고위급인사 왕래... 푸틴 방북으로 이어지나



▲中, 자국민 희생된 파키스탄 테러 강력 규탄... "양국협력은 계속"
▲엔·달러 환율 34년만에 최고... 추가 금리인상 기대 감소 속 약세 /사진 뉴시스